

기조연설

먼저 축사로 격려를 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토론회 주최로 나서주신 김한정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 오기형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손열 교수님, 하용출 교수님을 비롯해 세미나에 발제와 토론자로 흔쾌히 참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실용외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는 코로나 사태, 기후변화, 빈곤 등 문명사적 대전환과 범지구적 과제가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정치 군사는 물론 무역, 기술, 공급망을 놓고 경쟁하고 협력하고 대립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위험요인은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차원의 현안입니다. 전 세계 193개국 78억 명이 한배에 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상호연대와 협력 없이는 안위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세계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기존의 대처와는 다른 응전을 요구합니다.

한반도 주변에 강대국이 흥하고 대결선이 형성될 때면 우리는 늘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가는, 또 대륙에서 해양으로 가는 교차로이므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세사에서 다양한 도전을 맞아 선진경제와 민주주의 모두를 달성하는 성취를 이룬 바 있습니다. 지금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담대함과 실용성이 요구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고도의 ‘외교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4대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외교적 지혜가 뛰어나야 합니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실용외교의 개념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용외교는 국제현실과 현상에 기초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실용외교를 통하여 국력에 맞는 '선진외교'를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력은 G7과 유사한 반열입니다. 경제 규모로 치면 10번째입니다. 그렇지만 외교 역량은 아직 세계 10위권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외교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이 전후 70년간 피땀 흘려 이룬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가치를 반영한 정체성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전후 단기간에 경이로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지원은 물론 세계적 인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기여하여야겠습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창의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K-Culture를 비롯한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공공외교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진외교를 하는 데는 외교개혁이 수반됩니다.

둘째, 미·중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증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파워에 선진 외교력을 더하여, 우리가 중심을 갖고 대미, 대중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입니다. 유일한 동맹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선진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관계

는 안보와 번영의 기본 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외교, 군사, 경제, 문화, 공급망, 사이버, 우주, 기술협력 등 광범하고 포괄적인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한미 관계의 좋은 도약대입니다. 이의 실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인접국이자,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건실한 협력관계가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을 고도화하고 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심화시키는 것이 외교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융성하는 길입니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 평화에 실질적인 진전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우리는 물론 지역과 범세계적 차원의 안보 현안입니다. 분단은 민족의 아픔이고 평화 번영의 장애입니다. 비핵화와 평화를 진전시킬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북핵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므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과도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관계의 모델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넘어 미래로 갈 길을 찾는 것은 당위입니다. 과거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선 해법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일본 지도자들과 만나 격의 없이 협의해야 합니다.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오늘에 다시 살려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건 방역, 기후환경, 첨단기술 등도 안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경제안보 이슈도 유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흥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제도도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과 기후환경은 국제적 협력을 도출할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짝

막힌 남북관계에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연성안보 소재를 활용하여 국제협력과 연대를 주도해가야겠습니다.

다섯째, 전 세계 약 750만명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발전의 큰 자산이자 우리와 세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교량입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국가에 맡겨진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만큼은 정파를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대하야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과 굳이 대척에 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초당적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외교안보는 실용의 공공재여야 합니다.

일찍이 노태우 대통령은 여야, 진보·보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통일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잘 활용하여 동맹과 대북 포용을 동시에 가져가는 창의와 용기를 실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이라는 실용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선 정부의 좋은 유산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주저하지 않고 개혁해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외교의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고 실용외교의 그릇에 창의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021.12.13.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 위성락